

일상회복 전환 방역 현장 점검

김희옥 무주부군수, 사회복지시설 방문 방역사항 관리 살펴

무주군은 김희옥 무주부군수가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주간노인센터 집단감염 등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관내 평화요양원에 대한 방역사항 관리를 위해 방문했다. 이날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요양원을 방문한 김 부군수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김희옥 부군수는 “백신접종률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 일상회복으로 전환 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등한 사례가 많다”며 “일상회복 전환이 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군수는 “일상회복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철



김희옥 무주부군수가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11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상회복추진단은 총괄지원반, 민생경제, 농업분야, 문화관광, 안전재난, 방역의료 등 5개 분야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라 일상회복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가을철 종합 산불대책 추진

장수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비상체계 가동

장수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북극 해빙과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군은 산불종합상황실과 각 읍·면에 총 8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진화대·산불감시원 운영, 산불 모니터링 등 종합

적인 산불대책을 추진한다.

44명의 산불 전문 진화대 편성과 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도 미리 확보해 즉각적인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장수군은 산림지역이 75%인 지역으로, 관내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수많은 산림자원을 가진 곳”이라며 “산불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 개최

드론 랜선관광·축제 실시간 중계 서비스 등 시연

진안군은 지난 2일 오후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및 의원, 실증관련 부서장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시연은 개별적이고 병렬적인 기존의 드론 활용 한계점을 극복하고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드론 랜선관광 및 축제 실시간 중계 서비스, 산림재난 발생 예상지역 모니터링, 깨끗한 식수 제공 및 용담호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 축산시설 악취모니터링, 그리고 위 사업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실증 완료율은 2일 기준 90%가 넘는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 추진중인 드론 실증 내용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에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하겠으며, 신성장동력 드론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연장소인 상전면 체련공원은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공모한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상설실시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동부산악권 수요자들의 시간적 어려움과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찾아봄’ 운영

진안군이 11월부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인 ‘찾아봄’을 운영한다.

‘찾아봄’은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정신건강관련 상담을 추진하는 이동 상담실이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주공 1차 마을회관을 비롯한 읍내 8개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마을주민들과의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혼자 고립되어 외로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완화를 위해 운영한다.

정신적인 불안감은 있으나 선뜻 정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적인 어려움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 간이 우울, 불안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마음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정신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며 고령 인구의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이 나서 정신적 돌봄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동향, 용담, 주천 등 교통 취약지구를 먼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예정이며 지역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직업군 등 고 스트레스 위험 종사자들에게까지 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신건강서비스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며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주민들의 정신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시범 설치

무주군은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한 가로변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개·고양이 등 야생동물들이 봉투를 훼손해 인도나 차도 등에 쓰레기가 흩날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무주군은 무주중학교 앞 등 무주읍 일원의 거점지역 22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박영석 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관리직들의 작업부담 경감, 관련 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라 상황을 봐서 전용 수거함 설치구역을 6개 읍면 전체로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삼삼오오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군민의 건강걷기 활성화와 건강 향상을 위해 삼삼오오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2019년 질병관리본부 건강조사 결과 장수군의 걷기 실천율이 전북 평균 37.7% 보다 낮은 18.0%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서면, 계남면, 번암면 3개소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걷기 프로그램은 근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 실내에서 노르딕 스틱을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과 마을주민들이 삼삼오오(三五五) 짝을 지어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마을 걷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마을별 걷기 리더를 선정해 주민 자율적 걷기 실천을 유도해 걷기 생활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